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80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4)거슨새미·안돌·밭돌오름
진지동굴·잣성·우물·신당 곳곳 간직

입력 : 2004. 01.16. 00:00:00



눈 반 비 반의 날씨가. 을씨년스럽다고나 할까. 지난해 12월 중순(14일) 탐사단은 거슨새미오름을 향했다. 예정된 코스는 거슨새미 안돌 밭돌 체오름이다. 곳은 날씨 속에서도 강행군이다. 이날은 안개비가 내리다가도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등 칼바람을 동반한 변화무쌍한 날씨가 곤혹스러움을 더했다.

△거슨새미

거슨새미는 오름 서쪽 기슭에서 솟아나는 물이 바다쪽이 아닌 한라산 방향으로 거슬러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미오름 샘오름이라고도 한다. 표고 380m로 구좌읍 송당리 산 145번지에 위치해 있다. 말굽형 분화구는 한라산 쪽으로 형성돼 있고 무성한 잡풀이 우거져 있다.

거슨새미 정상부에서 바라보이는 아부오름이 마치 큰 대접이 놓여있는 형국 같다. 반대편으로는 광활한 초원이다. 이러한 입지 여건 탓에 조선시대부터 이곳 일대는 국영목장으로 활용됐다.

△안돌오름

표고 368m의 안돌오름은 특이한 지형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오름경사면이 마치 계단처럼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사면의 토양이 극히 느린 속도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토양 포행(土壤 匍行·soil creep)현상이다. 토양이 물을 먹었다가 마를 때, 또 얼었다가 녹을 때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지표면이 아래로 조금씩 이동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포행현상은 동검은이, 용눈이오름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안돌오름 분화구에서 탐사단은 4개의 동굴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는 일제강점기 진지동굴도 있어 탐사단을 놀라게 했다. 나머지 역시 인공동굴로 탐사위원들은 정확한 성격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돌오름은 깊다랗게 패인 골짜기 같은 협곡이 진행되고 있었다. 협곡 좌우는 떼죽나무 쥐똥나무 예덕나무 등 교목림이 울창한 숲을 이룬 채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발한다. 분화구 내에서 시작된 협곡은 약 깊이 5m, 폭 2m, 길이는 분화구 밖까지 1k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곡은 진지동굴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간의 인위적 요소와 자연적인 침식이 결부되면서

이같은 규모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멘트 구조물 흔적이 협곡 단면의 상층부에서 확인되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밭돌오름

밭돌오름은 안돌오름과 이웃해 있다. 경사면을 굽이쳐 오르면 바로 밭돌오름이다. 두 오름 사이는 조선시대 쌓은 하жат성이 남동~북서방향으로 형성된 삼나무 숲에 가린 채 이어져 있다. 이 하жат성을 경계로 안돌오름 일대는 조선시대 국마장인 제1소장 지경에 해당된다.

이 두 오름의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안팎으로 있다고 해서 안돌·밭돌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잣성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에 있어 그렇게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는 돌오름, 한자로는 안돌은 내석악(內石岳) 밭돌은 외석악(外石岳)이라 하기도 한다.

이날 탐사에는 오랫동안 제주잣성을 연구해온 강만익씨(제주공고 교사)가 동행했다. 강씨는 “제주의 잣성은 중앙의 제주지배 산물로 제주민의 한과 삶이 녹아있는 5백년 역사가 응축돼 있다”며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표고 352m의 밭돌오름 분화구 깊은 곳에는 ‘돌오름물’로 알려진 오래된 우물터와 당(堂)이 숨어있다. 주변은 삼나무로 울창하고 바람마저 자취를 감춘 곳이다. 우물은 직경이 2m, 깊이 2m 정도로 비교적 크다. 우물을 원형으로 두른 현무암의 돌이끼가 파랗다 못해 시릴 정도다. 샘물에 투영된 녹음과 티없이 맑은 하늘이 고요함을 더한다. 우물 바로 위쪽에는 원래의 우물터 흔적이 남아있다. 아마도 이 우물터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래쪽에 다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잇대어 자리한 신당터는 시멘트로 계단식 제단을 만들었다. 최근까지도 치성을 드렸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거센새미 안돌 밭돌오름 일대는 일제시대의 진지동굴과 잣성, 신당터 등 역사의 흔적과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잣담으로 나누어진 쌍둥이 오름

안돌오름과 밭돌오름은 남서~북동방향으로 서로 마주보며 솟아있다. 두 오름 남쪽으로는 거센새미오름(샘이오름)이 지척에 자리잡고 있고, 북서쪽으로는 체오름이 자리잡고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4개의 오름이 한 데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안돌오름과 밭돌오름 사이에 있는 돌담은 바로 조선시대 때 국영목장을 경영하기 위해 경계선으로 사용했던 하жат성의 흔적이다. 지형도에도 길게 이어진 선(線)을 따라 몇 군데에 ‘돌담’이라고 적혀 있다.

안돌오름이 위치하는 곳은 국마장(國馬場)인 10소장 중 제1소장 지경에 해당되며 밭돌오름을

포함한 송당마을 쪽은 목마장 밖이 되는 것이다. 국마장의 경계선인 하жат성은 마을과 농경지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을 피하는 형태로 둘러쳐진 것이다.

안돌오름은 분화구가 동북방향으로 개구(開口)되어 있는데 약 200여m에 걸쳐 마치 계곡처럼 깊게 패여 있다. 놀랍게도, 안돌오름 안쪽 양사면에는 동굴이 4군데나 있었다. 다분히 일제 강점기 때에 만들어진 진지동굴(陣地洞窟)로 여겨지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밭돌오름의 분화구도 북동방향으로 개구돼 있다. 개구된 분화구의 방향을 따라 계곡이 형성돼 있는데 계곡부의 표고 약 300m 지점에는 우물과 당(堂)이 자리잡고 있다. 신당에는 제물을 올릴 수 있는 2단의 시멘트 구조물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한 쪽에는 크고 작은 대야와 플라스틱 상자, 냄비, 그릇, 수저 및 젓가락, 식기 세척제 등이 놓여 있는 정황으로 보아, 최근에도 특정한 날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돌오름과 밭돌오름은 마치 제주 전통초가의 안거리와 밖거리와 같은 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잣담으로 구분 지어놓고 위치에 따라 그 용도도 달리 해 왔지만, 두 오름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 형제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정광중 탐사위원 인문지리분야/제주교대 교수)

[大脈에서 만난 사람]야생화 닳은 버섯마니아 고평렬씨

한라대맥 탐사에는 탐사위원이 아닌 전문가 한사람이 동행하고 있다. 마치 오름에 핀 야생화처럼 빛을 발하는 버섯마니아 고평렬씨(41)가 주인공이다.

특히 버섯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출중한 실력에다 특히 지칠줄 모르는 탐구 열정에 각 분야의 전문가인 탐사위원들조차 혀를 내두르기가 일쑤다. 그래서인지 버섯분야가 대맥탐사에 한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그 증거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대맥탐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고씨의 버섯사진들이 약방에 감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씨의 별명은 '팽이'다. 팽이라는 이름으로 버섯이나 야생화 사진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면서 붙여졌다

"5년째 한라산과 오름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다보니 특히 버섯이나 야생화 사진찍기와 도감찾기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고씨는 처음보는 버섯 등을 발견했을 때는 가슴은 벅차고 버섯도감이나 식물도감에서 그 정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잠을 못 이룬다.

오름오르기를 마쳤을 때에는 억척같은 생활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탐동에 위치한 오르미 곱창전골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늦게 문을 열 때는 등산복 차림에 그냥 손을 걸어붙이곤 한다.

손님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좋다고 한다. 식당 벽에 걸려있는 버섯·야생화 사진들을 보면 식당 주인의 일면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작가의 실력을 뽐친다고 할까.

지금까지 찍은 2백여종의 버섯과 고운 빛깔의 야생화 사진들은 음식맛을 더욱 돋운다.

특별취재팀/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강시영·이윤형차장()·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알림]탐사동행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1월 17일(토)은 체오름·거친오름을 탐사합니다. 동행을 희망하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획특집부 (750-2280)로 연락바랍니다.

한라일보는 한라산 학술대탐사 제2부인 '한라대맥을 찾아서' 탐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http://www.hallailbo.co.kr>)에 접속해 한라산 대탐사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탐사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뱃돌오름의 형님격인 안돌오름은 완만한 곡선이 아름답고 진지동굴과 계곡을 품고 있다./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